

미래를 위한 Medical Complex 발전계획 추진

(가칭) 60주년 기념관
설립 추진

의생명산업연구원
리모델링

서울성모병원
별관 리모델링

의료인 양성 60년
세계로 도약 100년

교육 · 연구 · 진료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

서강대 MOU 체결
교육 영역 확장



60주년 기념 포토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세계 간호교육을 리드하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육목적 +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사
전문적 역량이 있는 간호사
국제적 안목이 있는 간호사를 양성한다.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 · 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

전국 8개 병원, 5700여 병상
최상의 교육환경은 물론
졸업 이후의 진로에도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의료



서울성모병원
1,335 병상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병원



여의도성모병원
470 병상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경기 북부 권역
보건의료의 허브



의정부성모병원
706 병상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재창조를 통한 건강
그 이상의 행복실현



부천성모병원
603 병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사랑 담긴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성남오로병원
355 병상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최첨단 의료장비
최상의 진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인천성모병원
771 병상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탄탄한 역사의 뿌리로
견고한 신뢰의 가치를
뽐어나가는 곳



성진센트병원
797 병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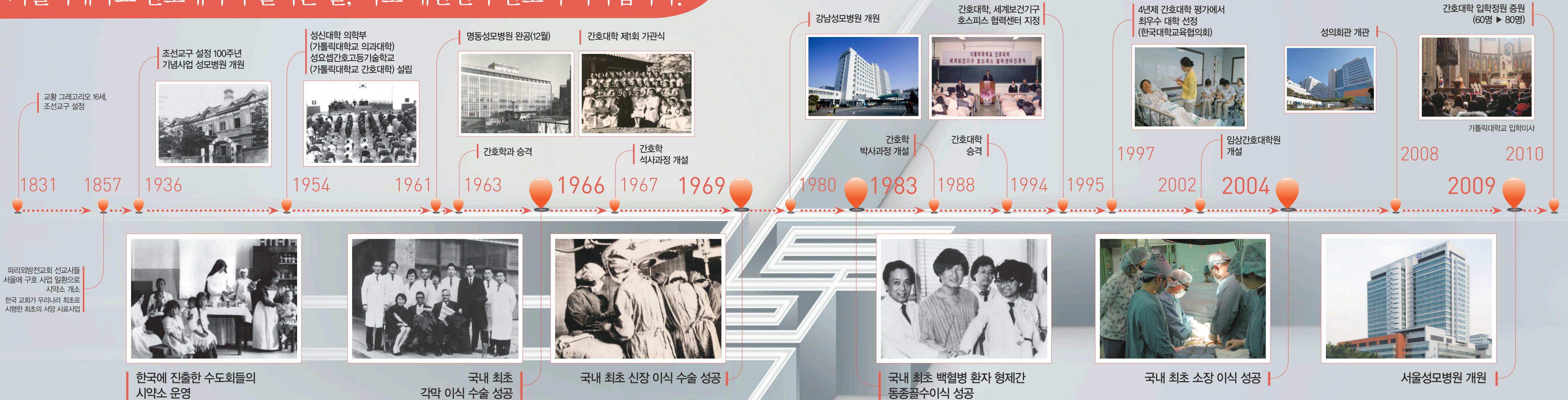
대전성모병원
682 병상
대전시 중구 대흥로

가톨릭대학교
제9의 부속병원
(2018년 개원 예정)



은평성모병원
14센터, 17개 임상과 (800 병상)
서울시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걸어온 길, 바로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입니다.



의지할 곳 없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구호활동

가톨릭교회의 의료 활동을 살펴보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조선교구 설정(1831)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뤄지던 시기였기에, 파리와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5년이 지난 1836년에야 은밀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7년, 당시 **극심한 흉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피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약소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펼친 최초의 의료 활동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한불수호조약 체결에 따른 외국 수도회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가톨릭교회는 1931년까지 전국 각지에 11개에 이르는 의료시설을 운영하며 구호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라 (루카 9,2)

1931년, 가톨릭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그때까지의 간이진료 형태를 벗어나 정식 병원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제9대 경성교구장 라리보 주교는 1936년 5월 지금의 중구 자동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모태인 '성모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성모병원은 하루 외래환자 100명을 훨씬 넘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 의료를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4년 '승고한 사명감을 지닌 역량 있는 의료인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을 개교**하게 됩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과 함께하다

1960~70년대는 경제의 고도성장기이기도 했지만 한국 의학의 고도성장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톨릭대학교가 있었습니다. 1961년엔 현대식 종합병원인 명동성모병원을 완공·개원하여 가톨릭교회 의료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초의 각막 이식 수술(1966년), 최초의 신장 이식 수술(1969년)은 한국 장기이식의 역사를 열어 수많은 생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8년 경운동에 새로운 학교 건물을 마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의료선교의 오랜 역사를 꾸준히 계승해 자선진료소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갔고 산재병원, 한센병연구소 등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의료분야를 개척해 발전시켰습니다.

강남 시대의 개막 국내 최고의 간호교육 환경 구축

가톨릭대학교는 1976년 서초구 반포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1980년 강남성모병원 개원, 1982년 반포동 교사 이전을 통해 교육·연구·진료가 한 장소에 집약된 캠퍼스를 구축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내 최초로 백혈병 환자 형제간 동종골수이식 성공(1983년), 최초의 소장 이식 성공(2004년) 같은 의학적 성과를 이룩했고 **호스피스, 가정간호 분야에서도 더욱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성심여자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며 반포동 캠퍼스는 가톨릭대학교 성의 교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1997년에는 의생명 산업연구원 설립, 2008년 성의회관 개관에 이어 2009년 서울성모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총 8개 부속병원을 지닌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정)60주년 기념관 설립과 은평성모병원 신축(2018년 개원 예정)을 통해 최고의 간호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